

# 일본 1차 에너지 공급 감소추세

## 산업부문의 소비감소 따라 ... 이라크 정세 따라 추가감소 가능

일본의 2003년 에너지 공급이 산업부문의 소비감소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전망에 따르면, 2003년 제1차 에너지 공급은 에틸렌 감산 등 산업부문의 소비감소로 0.3% 감소한 5억7140만kl(원유환산)로 나타났다.

여기에 중동분쟁의 확대 등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 제1차 에너지 일본 내수 공급은 1.2% 감소한 5억6630만kl에 각각 머물 전망이다.

2002년 1차 에너지 일본 내수 공급은 전년대비 1% 증가, 최종 에너지 소비도 1% 증가해 원유로 환산했을 때 각각 5억7290만kl, 4억140만kl를 기록했다.

내수 공급의 증가는 조강(粗鋼)생산증가 등으로 석탄과 석유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특히 석유는 연료유 판매가 3년만에 증가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BC중유가 원자력발전의 장기정지로 전력용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 3년만에 1.6% 증가했다.

### 일본의 에너지 수급전망

구 분	2000	2001			2002			2003
		상반기	하반기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합계	
1차에너지 공급 (10 <sup>10</sup> kcal=1000TOE)	535,025 (0.2)	257,051 (▽0.3)	267,051 (▽3.5)	524,477 (▽2.0)	257,524 (0.0)	272,441 (2.0)	529,966 (1.0)	528,528 (▽0.3)
석유비중(%)	49.9			49.3			49.6	47.6
최종에너지 소비 (10 <sup>10</sup> kcal=1000TOE)	375,732 (0.7)	175,003 (▽2.3)	192,694 (▽2.0)	367,697 (▽2.1)	175,330 (0.2)	195,991 (1.7)	371,321 (1.0)	369,525 (▽0.5)
산업부문	178,085 (1.5)	82,791 (▽4.6)	88,266 (▽3.3)	171,057 (▽3.9)	83,365 (0.7)	89,860 (1.8)	173,225 (1.3)	171,368 (▽1.1)
민간부문	99,745 (2.4)	43,226 (0.1)	55,520 (▽1.8)	98,746 (▽1.0)	43,174 (▽0.1)	57,225 (3.1)	100,399 (1.7)	100,606 (0.2)
운수부문	90,739 (▽2.2)	45,844 (▽0.2)	45,170 (0.8)	91,013 (3.0)	45,667 (▽0.4)	45,110 (▽0.1)	90,777 (▽0.3)	90,618 (▽0.2)
전력 판매량(100만kwh)	858,083 (2.6)	430,674 (▽1.0)	413,700 (▽2.2)	844,374 (▽1.6)	431,270 (0.1)	423,337 (2.3)	854,607 (1.2)	860,755 (0.7)
도시가스 판매량 (100만m <sup>3</sup> /+1만kcal)	25,017 (4.5)	11,628 (1.5)	13,778 (1.6)	25,406 (1.6)	12,212 (5.0)	14,702 (6.7)	26,914 (5.9)	27,782 (3.2)
연료유 판매량(1000kl)	243,211 (▽1.1)	109,890 (▽3.2)	126,310 (▽2.6)	236,199 (▽2.9)	108,076 (▽1.7)	130,603 (3.4)	238,679 (1.0)	231,590 (▽3.0)
국내총지출 (1995년 기준 10억엔)	539,215 (3.2)	264,061 (0.2)	267,508 (▽3.0)	531,569 (▽1.4)	265,087 (0.4)	270,648 (1.2)	535,735 (0.8)	538,555 (0.5)
일본 GDP 원단위(1995=100)	97.4 (▽2.9)			96.8 (▽0.6)			97.1 (0.3)	96.3 (▽0.8)
CO <sub>2</sub> 배출량(탄소환산 100만톤) (1990=100)	316 110.2 (1.1)			312 108.7 (▽1.3)			320 111.6 (2.6)	311 108.3 (▽2.9)

† ( )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